

축사

2017. 1. 24(화) 14:00~15:00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작년 1.25일 출범한 클라우드펀딩이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오픈 기념식은
정부부처와 증권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클라우드펀딩 1년간의 결실을 보여주듯
성공기업과 중개업체를 중심으로
1주년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뜻 깊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성공기업, 클라우드펀딩 중개업체 대표님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님과
임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II. 그간의 성과 및 노력

여러분 !

1년전 클라우드펀딩 출범 당시를 회고해 보면
시장의 기대도 컸지만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클라우드펀딩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

1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
안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 ① 261건의 아이디어가 펀딩에 도전하여
121건이 성공(성공률 46.4%)하였습니다

- ② 116개 기업이 사업성을 검증받아
7천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총 180억원의 자금이
제조, IT, 모바일, 교육,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되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큰 규모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를 수혜받는 기업에겐 성장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었습니다.

- ③ 펀딩을 성공한 이후,
후속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수출에 성공하는** 등
후광효과를 얻은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 모션블루(스마트블록) : IBK매칭투자조합 후속투자 유치(10억원)

** 마린테크노(해양화장품) : 한·미 정상외교시 현장수출계약 체결(20만\$)

특히,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는
'클라우드펀딩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뉴스가 될 정도로 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주목을 받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 '사냥'(16.6월 개봉), '인천상륙작전'(7월), '판도라'(12월), '뚜르'(17.2월 예정) 등

인프라 측면에서 살펴보면,

- ① 중개업체는 출범 당시 5개사에서
전업 8개사, 겸업 6개사 등 14개사로 늘어나,
자금조달의 플랫폼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② 종합 안내사이트인 '클라우드넷'은
클라우드펀딩의 포털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 ③ 유망기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에는
그동안 투자추천기업 474개를 포함,
약 18,000여개 기업 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④ K-클라우드펀드(260억원), 마중물 펀드(100억원) 등
펀딩 성공 및 후속 투·융자 지원체계를
만들고 확충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는
중개업체,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이
흘린 땀과 기울여주신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I.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여러분!

경제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수많은 창업·중소·벤처기업을 통해,

두려움 없는 도전의식을 가진 인재들이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세계경제의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는,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발휘하여
아이디어와 사업기회를 개발·창출하는
창업·중소·벤처기업인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크라우드펀딩은,
‘집단지성’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창업·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검증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필요한 사업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이프라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크게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중개업체와 유관기관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심기일전 합심하여 노력해나가야 하겠습니다.

(1) 정부는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① 스타트업 전용시장(KSM) 개설('16.11월),
80억원 규모의 Seeding 전용펀드 신규 조성('16.12월),
청약시스템 사용자 친화적 개편('16.12월) 및
업무매뉴얼·체크리스트 제공('16.12월~) 등에 이어,

② 2월까지 적격투자자의 범위 확대 등
시행령 개정사항을 모두 마무리하는 한편,

광고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③ 투자기업정보 통합정보망(아카이브) 구축(예탁원, 1월중),
펀딩 성공기업의
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킵스타터) 등재(2월중) 등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④ 이와 함께, Seeding 전용 펀드 등을 활용하여
우수기업의 펀딩 성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후속 투·융자 프로그램(희망펀딩대출 등)을 통한
펀딩성공기업 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 중개업체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보다 많이 발굴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인력·정보력·네트워크를 갖춘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3) 산은, 기은, 신·기보, 성장금융 등 유관기관은
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성공 이후
성장기반을 확충해나가는 데
지원 역량을 더욱 더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희망펀딩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2월 요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한 만큼,
앞으로 가시적인 지원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IV. 마무리

내외 귀빈 여러분!

“거목만으로는
결코 숲을 이룰 수 없습니다.”
풍성한 숲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린 나무들이 자라나야 합니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 창업·중소·벤처기업들을 잘 길러내는
토양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펀딩은
씨앗이 되는 유망기업들을 키워내는데
꼭 필요한 자양분입니다.

올 한해도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설 연휴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